

금주의 칼럼

효과적인 의사소통(7)

7. 피드백 주고받기

나는 비판을 받을 때 방어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나요?
 나는 상대의 피드백을 성숙하게 수용하고 있나요?
 나는 피드백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칭찬과 지적 사이의 균형을 알고 있나요?
 나는 칭찬할 때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나요?
 나는 상대의 성장과 유익을 생각하며 피드백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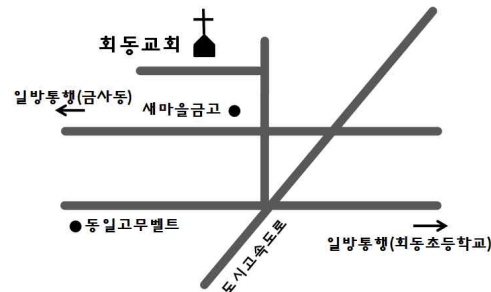
나는 피드백을 부탁받은 적이 있을 때 정직하게 말했나요?
 나는 비판보다 격려가 앞서는 소통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받은 책망을 사람의 말에서도 분별할 수 있나요?
 나는 피드백을 '사랑의 언어'로 여기는가요?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캄보디아 (최** 살롬회)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선교부)
- 총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부,본회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기도후원)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삼 일 기 도 회 오후 7: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삼 일 예 배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주일예배 성례주일

오전 11: 00 / 인도 : 배영조 목사

입 레	입례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빌 1:9)
찬 송	1장
교 독 문	91문 (성찬1)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311장
기 도	오정수 장로
성 경 교 독	고린도전서 11:23-26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성찬식의 의미
찬송*봉헌	305장 / 봉헌 / 봉헌기도
성 례 식	인도자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620장 (1절)
축 도	인도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2026. 4 . 26 / 제 48-17

2026 비전 :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찬양예배 오후2시

인도:배영조목사

작은십자가 찬양

[1:45-2:05]

입 레: 인도자

찬 송: 382장 / 393장

기 도: 남선이 권사 (다음: 김삼예 권사)

성 경: 시편 64: 6-10

특 송: 6구역 (다음: 7구역)

말 씀: 두려움(2)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말씀 : 신명기 강해 / 인도: 배영조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누가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4 월 봉사 안내

차 량	(오전) 김수안 오세영 / (오후) 박상태(온천) 최진수(재송)
안 내 / 식 당	최은경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중 식 봉 사	1주(5일) 2주(12일) 3주(19일) 4주(26일)
기 도	3,4구역 5,6구역 7,8 구역 9,10구역
주 일 예 배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주 일 오후	김경애 백운자 이봉순 김삼예
삼 일 밤	합심기도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 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휘: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522-3708(목사관)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1 5월안내: 5월 안내 봉사당번 나갑니다.

안내: 김삼예 차량오후: 오정수(온천방향) 오세영(재송방향)

2 성례주일: 오늘은 성례주일로 드립니다. 세례와 성만찬 예식 있음

3 직원선거결과: 지난주 투표로 당선된 일군입니다.

장로피택자: 김은성 김종섭 안수집사피택자: 김은수 최문성 박상재

권사피택자: 이현정 전만주

당선된 분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11월 중순경에 임직을 받습니다.

1차 모임: 5월 3일 점심 후에 모임. 3층 교육관

4 구역장모임: 오늘 점심 후에 구역장 모임을 갖습니다.

시간: 오후 1시 10분, 장소: 3층 교육관

5 시찰회: 동래시찰회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찰모임.

장소: 서동교회당 29일(수) 오전 11시

6 전도팀: 4월부터 전도팀 전도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셋째주. 1교구팀- 금요일 오후 2교구팀- 화요일 오후

7 교회방수공사: 2층 3층, 전면부분, 교회방수 공사

수고하신분: 김종섭, 김은성, 이성희, 최문성 집사 수고하심

8 결혼- 나용주*이은심 권사의 딸 나소영 양 결혼

5월2일(토) 오후2시 목화웨딩홀(연산) 15층 아모르홀

당일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야외행사: 6월 3일(수) 회동교회 전교인 대상 야외행사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알려드립니다.

4 월 행사 안내

* 고난주간 3월 30-4월 4일	* 월례회: 각 전도회 월례회 4월 셋째주일
* 부활주일: 4월 5일주일	* 대청소: 4월 12일주일 교회대청소
* 대심방: 4월 계속 진행중	* 전도팀 전도: 4월부터 첫째주, 셋째주 전도
* 동부산노회: 정기노회, 4월13-15일 남산제일	* 성례주일: 4월 마지막 주일
* 동래시찰회: 노회후에 예산배정 모임	* 문답: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문답 4월26일
* 경배와 찬양: 4월 둘째주일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 구역모임: 4월 모임 진행중	* 새가족부 :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향기로운 예물

◆**십일조:** 박상재*배성령 배영조*김옥단 백운자 이봉순
이성희*강승경 정재오*최준경 최문성*장지원
이은심 한성희

◆**감 사:** 강재훈 김은수*김은숙 박위순 박종규*강영선
배영광 배영조*김옥단 백운자
최준경 가족 일동

◆**대심방:** 신광수

◆**선 교:** 3여전도회 김세울*백순귀 이성희*강승경
박상재*배성령 김미경 최춘은 이은심
백운자 남선이

◆**건 축:** 이은심 김세울*백순귀 이성희*강승경 백운자
남선이 김미경 최춘은 박상재*배성령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마태, 시편, 신명기	본당
친교(탁구부)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4월 모임

구역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교구						
1	이순점	3		10,000	1372	박위순
2	강형순	2		10000	3550	교 회
3	이은심	4		11000	3200	교 회
4	백운자	5		25000	5335	교 회
5	김경애	4		20000	2580	김경애
2교구						
6	이봉순	5			1136	김은성
7	박광자	6		10000	2070	김중렬
8	이현정	8		10000	5674	김수안
9	전만주	8		10000	3275	임중철
10	김종섭	7		15000	720	이영희

생명의 양식

04-4 훈계의 원리 (6) 잠언 29장 17절 구역장공과

다섯째, 자녀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훈계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특징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부가 자질이 아닌데, 공부를 가지고 훈계하면 안됩니다.

기도가 자질이 아닌데, 기도를 가지고 훈계하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기준으로 훈계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훈계할 때 훈계의 기준을 침착하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훈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설정할 때는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훈계할 때 부모의 기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을 상대로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훈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빠는 이렇게 하고, 엄마는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훈계의 규칙은 대개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훈계의 집행은 대개 어머니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훈계의 기준에 있어서만은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경우 남편의 훈계가 마땅치 않아도 자녀 앞에서 그 표시를 해서 자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작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내가 신앙인이고,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롭게 남편의 의견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서는 철저히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머니 혼자서라도 권위를 세우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어도 영적 기틀만 든든히 세우면

자녀들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